

개역한글판 구약전서의 고유명사 음역 일부 통일 제안

박동현*

필자는 『성경원문연구』 제8호(2001년 2월), 106-157쪽에 “개역한글판 히브리어 고유명사 한글 음역 방식과 히브리어 한글 음역 시안”을 발표한 바 있다¹⁾. 이 과정에서 개역한글판 구약 전서의 고유 명사 음역 방식에 일관성이 모자란다는 사실이, 특히 같은 이름이 두 가지 이상으로 서로 다르게 음역된 경우가 적지 않음²⁾이 눈에 띄었다. 이리하여, 개역한글판 구약 전서의 고유명사 음역에 대한 전면 개정의 합의에 이르자면 아직 여러모로 어렵지만³⁾, 우선 개역한글판의 음역 방식을 존중하면서, 다만 한 고유명사에 대해 여러 가지로 한 음역을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로 통일하고, 그 결과를 개역한글판 성경의 개정 작업이나 그 후 성서 개정 번역 작업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필자의 생각에 대해 대한성서공회가 환영의 뜻을 표하며, 그동안 대한성서공회에서 해 온 성서 개정 번역 작업과정에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모아 둔 자료⁴⁾를 대한성서공회 개정업무과 전무용 차장을 통해 1998년 6월에 필자에게 전해 왔다. 이제 필자는 이 글에서 필자 자신이 찾아본 자료와 성서공회에서 전해 온 자료를 중심으로 한 이름에 대한 음역이 통일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어느 쪽으로 통일할 것인지 의견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이 글에서 기준으로 삼은 개역한글판 성경은 1997년에 나온 『해설관주 성경전서 독일성서공회판』의 본문이다⁵⁾.

* 장로회신학대학교, 구약학.

1) 이 줄고를 아래에서는 “음역 시안”으로 줄여 적기로 한다.

2) “음역 시안”의 항목 0.3, 특히 0.3.(1)을 보라.

3) “음역 시안”에서 필자 나름대로는 한글개역판의 히브리어 고유명사 음역 방식을 살린 히브리어 자음 음역의 원칙을 제시해 보려고 했다.

4) 200자 원고지 65장 분량의 이 자료에는 개역한글판 구약 전서의 고유명사 음역에서 통일성이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약 전서에 그러한 경우도 모아 놓았다.

5) 한글개역판(1961년 7월10일 초판)이라 하더라도 언제 나온 성경을 기준으로 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테면 대한성서공회의 자료와 이성호 편, 『새성구대사전』(서울: 성지사, 1993년판), 1022쪽에서는 예레미야 47장 5절과 7절의 יִצְחָק 을 개역한글판에서는 ‘아스겔론’으로 음역했다고 하나, 1997년 9월 20일에 나온 『관주

라가 골짜기’(대하20:26)로, **עמק עכוּר**를 ‘아골 골짜기’(수7:24,26; 15:7; 사 65:10; 호2:15)로, **עמק רפאים**(수18:16; 삼하5:18,22; 23:13; 대상11:15; 14:9)이나 **עמק־רפאים**(수15:8)을 ‘르바임 골짜기’로 옮긴 것에 맞추어 ‘그 시스 골짜기’로 번역하면 더 나을 것이다⁷⁾. 그렇지만, 이는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만 나오는 고유명사이어서 같은 낱말을 여러 가지로 음역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② 느헤미야 11장 29절의 ‘에느림몬’(עִיִן רַמּוֹן)은, עִיִן이 앞에 나오고 뒤에 다른 낱말이 와서 그 둘이 한 지명을 가리킬 때 ‘엔...’이라고 음역하는 일반 전통에 어긋나므로, ‘엔림몬’으로 고칠 만하다. 그렇지만, 이 지명도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만 나오는 고유명사이어서 같은 낱말을 여러 가지로 음역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3) 한 이름에 대해 여러 가지 철자법 때문에 음역에 차이가 나는 경우

한 이름에 대해 여러 가지 철자법이 있다고 해서 개역한글판에서 그 이름의 음역을 늘 달리 적지는 않는다. 이를테면 야훼의 이름이 뒤에 붙는 사람 이름의 경우에는 יהִ-와 그 긴 풀인 יהו-을 구별하지 않고 한 가지로 음역하는 수가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철자법 때문에 음역에도 분명히 차이가 나는 수가 있다. 이런 경우는 이 글에서 따로 다루지 않기로 한다. 다음이 그런 보기이다.

① 여호수아 15장 24절의 **מֶלֶךְ**(멜렘)을 사무엘상 15장 4절에서는 **מֶלֶךְ**(들라임)으로 적는다. 이 경우에는 이 둘을 굳이 통일하여 음역할 필요가 없다.

② 포로후기 유다 공동체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수아)의 아버지의 이름을 역대상(6:14[5:40]⁸⁾; 6:15[5:41])과 학개(1:1,12, 14; 2:2,4)와 스가랴(6:11)에서는 ‘여호사닥’(יהוֹשָׁדָק)이라 하고, 에스라(3:2,8; 5:2; 10:18)와 느헤미야(12:26)에서는 ‘요사닥’(יְהוֹשָׁדָק)이라 한다. 이럴 경우에도 이 둘을 굳이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없다.

③ **יְרֵמוֹת**(여레못’, 대상7:8; 8:14; 23:23; 25:22; 27:19; 스10:26,27,29)이나 **יְרֵימוֹת**(여리못’, 대상 7:7; 12:5[6]; 24:30; 25:4; 대하11:18; 31:13)은 각각

7) 마찬가지로 **עמק המלך**을 창세기 14장 17절에서 ‘왕곡’으로 옮긴 것은 사무엘 하 18장 18절의 경우처럼 ‘왕의 골짜기’로 옮기는 것이 더 낫다.

8) [] 안에 들어 있는 숫자는, 성경장절 표시가 개역한글판과 다른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히브리 성경의 장절을 가리킨다.

서로 다른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쓰인다. 그 가운데서 같은 사람이 이 두 가지 이름으로 나오는 경우는 다만 역대상 23장 23절의 ‘여레못’과 24장 30절의 ‘여리못’, 또 역대상 25장 4절의 ‘여리못’과 22절의 ‘여레못’의 두 경우밖에 없다. 이런 경우에는 모음 하나가 아예 다르므로,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

④ 구약 성경에서 מִסְבֵּה 나 מִסְבָּה 라 불리는 곳은 다섯 군데 있고 מִסְבֵּה 나, מִסְבָּה 라 불리는 곳은 세 군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두 이름을 다 쓰는 경우로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베냐민 지파의 성읍을 들 수 있다. 이 성읍을 여호수아 18장 26절에서는 מִסְבָּה (미스베)라고 하고 다른 여러 구절(삿20:1,3; 21:1,5,8; 삼상7:5-16; 10:17; 느3:7,15,19; 왕상15:22; 왕하 25:23,25; 대하16:6; 느3:15,19; 렘40:6-15; 41:1-16)에서는 ‘미스바’(מִסְבָּה 나 מִסְבֵּה)라 한다. 사사기 11장 29절의 ‘길르앗 미스베’는 10장 17절, 11장 11절, 34절, 호세아 5장 1절에서 말하는 길르앗 땅의 미스바라기보다는 여호수아 13장 26절의 ‘라맛 미스베’인 것으로 보인다⁹⁾. 이 경우도 모음 하나가 아예 다르므로,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

(4) 히브리어로 여러 가지로 표기된 이름을 문맥에 따라 통일하여 음역한 경우

① 레위의 아들 가운데 하나인 ‘게르손’(גֵּרְשֹׁן, 창46:11; 출6:16,17; 민 3:17,18,21,25; 4:22,38,41; 7:7; 10:17; 26:37; 수21:6,27; 대상 6:1[5:27]; 23:6)은 또한 ‘게르숨’(גֵּרְשֹׁם이나 גֵּרְשֹׁם, 대상6:16[1], 17[2], 20[5], 43[28], 62[47], 71[56]; 15:7)이라 불리기도 한다. 그런데 개역한글판에서는 역대상 6장 16[1]-71[56]에 나오는 גֵּרְשֹׁם 이나 גֵּרְשֹׁם 을 한결같이 ‘게르손’으로 적었는데, 이는 그 앞 6장 1절[5장 27절]의 גֵּרְשֹׁן 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우에 독자들에게 혼란이 오더라도 히브리 본문을 따라 처음에는 ‘게르손’이라 하고 그 뒤로는 ‘게르숨’으로 적을 것인지, 아니면 그 혼란을 피하기 위해 개역한글판에서 하듯이 히브리 본문의 ‘게르숨’을 ‘게르손’으로 바꾸어 적을 것인지는 번역자의 결단에 달린 문제이다. 그렇지만, 일단 개역한글판의 입장에는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¹⁰⁾.

9) L.Köhler / W.Baumgartner,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Lexikon zum Alten Testament*(Leiden: E.J.Brill, 1967-1995), 590쪽.

10) 이와 비슷한 경우로 다음 보기를 들 수 있다. 히브리 낱말의 발음을 따르며, יְהוֹנָדָב 은 열왕기하 10장 15절, 15절, 23절에서 하듯이, ‘여호나답’으로 적고, 그 짧은 풀인 יְהוֹנָדָב (삼하13:3,3,32,35; 렘35:6,10,19)만 ‘요나답’으로 적는 것이 좋다. 그런데,

② 다윗의 궁전과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도와주었던 두로 왕을 사무엘하(5:11)와 열왕기상(5:1[15],1[15],2[16],7[21],8[22]¹¹),11[25],11[25]¹²), 12[26];9:11,11,12,14,27; 10:11,22)에서는 ‘히람’(חִירָם)이라 하고, 역대하(2:3[2], 11[10],12[11]¹³),13[12]; 8:2,18; 9:10,21)에서는 ‘후람’(חִירָם)이라고 한다. 열왕기상 5장에서 두 번(5:10[24],18[32])은 חִירָם으로 불리어서, 그 발음대로 따른다면, ‘히롬’으로 적어야 했으나, 그 앞뒤에 나오는 ‘히람’에 맞추어 이 경우는 모두 ‘히람’으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역대상 14장 1절을 개역한글판에서는 히브리 자음 본문을 따라 ‘히람’으로, <크레>(קרי)를 따른다면 ‘후람’으로 적을 수 있다. 또한 두로의 눈점장도 열왕기상(7:13,40 후,45)에서는 ‘히람’ (חִירָם)으로 나오는데, 역대하(4:11,11, 16)에서는 ‘후람’(חִירָם)으로 나온다. 이 경우도 열왕기상 7장 40절 전반절의 חִירָם은 그 앞뒤에 나오는 ‘히람’에 맞추어 ‘히람’으로 적었다. 이 모든 경우에 한글개역판의 음역은 그 나름대로 일관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굳이, 어느 하나로 통일할 필요는 없다.

③ 히브리 본문에서 홍해 아카바만의 항구를 네 번(신2:8; 왕하16:6,6; 14:22)은 אֵילֹת이라 하고, 세 번은 אֵילֹת(왕하16:6; 대하8:17; 26:2), 한 번은 אֵלוֹת(왕상9:26)이라 한다. 개역한글판에서 אֵילֹת은 ‘엘랏’으로, אֵילֹת과 אֵלוֹת은 ‘엘롯’으로 음역했는데, 다만 열왕기하 16장 6절 전반절 마지막 낱말로 나오는 אֵילֹת은 그 앞 6절 전반절 앞부분과 그 뒤 6절 후반절의 אֵילֹת에 맞추어 ‘엘롯’으로 적지 않고 ‘엘랏’으로 적었다. 이 경우에도 독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본디의 발음과 달리 앞뒤의 경우에 맞추어 통일해서 음역한 한글개역판의 입장에는 타당성이 있으므로, 굳이 고쳐 적을 필요는 없다.

(5) 종족을 표시하는 어미 י.를 여러 가지로 번역한 경우

יְבוּסִי나 יְבוּסִי를 ‘여부스 사람’(출13:5; 수9:1; 샅1:21; 삼하5:6; 왕상9:20; 슥9:7; 스9:1; 대상21:15; 대하3:1 등), ‘여부스인’(민13:29), ‘여부스 족속’(창

사무엘하 13장 5절, 예레미야 35장 8절, 14절, 16절, 18절에서 긴 풀인 יְבוּסִי까지 ‘요나답’으로 적은 까닭은 사무엘하 13장과 예레미야 35장에서 짧은 풀이 먼저 나온 사실을 번역자가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고려는 독자의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이므로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3) ②와 견주어 보라.

11) 개역한글판 열왕기상 5장 8[22]절에서는 히브리 본문에 있는 חִירָם을 번역하지 않았다.

12) 개역한글판 열왕기상 5장 11[25]절 후반절에서는 히브리 본문에 있는 חִירָם을 번역하지 않았다.

13) 한글개역판 역대하 2장 12[11]절에서는 히브리 본문에 있는 חִירָם을 번역하지 않았다.

10:16; 출3:8,17; 신7:1; 수3:10; 대상1:14; 대하8:7; 느9:8 등), 그냥 ‘여부스’(수15:8; 18:16,28)로 적기도 했다. 장소를 나타내는 고유명사 ‘여부스’ 다음에 ‘족속’, ‘사람’, ‘인’ 가운데 어느 것을 붙일 것인지, 또는 아무 것도 붙이지 않을 것인지는 음역의 문제라기보다는 번역의 문제이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2. 음역을 통일해야 할 경우

(1) 서로 다른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쓰이는 הַיְיָאוּ (삼하11:3; 왕상15:5; 왕하16:10; 대상11:41; 스8:33; 느3:4; 사8:2 등 모두 36번)와 그 긴 끝인 הַיְיָאוּ (렘26:20,21,23)을 한편으로는 ‘우리야’(삼하11:3,6,6,7,8,8,9,10,10,11, 12,12,14,15,16,17,21,24,26,26; 12:9,10,15; 23:39; 왕상15:5; 대상11:41; 스8:33; 느3:4)로 적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야’(왕하16:10,11,11¹⁴),15,16; 느3:21; 8:4; 사8:2; 렘26:20, 21,23)로 적는다. 특히 느헤미야 3장 4절과 21절에서는 한 사람을 두고 앞에서는 ‘우리야’로, 뒤에서는 ‘우리야’로 적어 통일성이 없다. ‘리아’는 רִיאָה 나 רִיָּה 를 떠올리게 하므로, ‘우리야’를 ‘우리야’로 고쳐 적는 것이 좋다.

(2) יְהִי 를 사무엘하 6장 3절과 4절에서는 ‘아효’로 적었는데, 그 평행 본문인 역대상 13장 7절에서는 ‘아히오’로 적었다. 이 사람과는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역대상 8장 14절에서는 ‘아히요’로, 또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역대상 8장 31절과 9장 37절에서는 다시 ‘아히오’로 적었다. 개역한글판에 나오는 세 가지 음역 가운데서는 ‘아효’가 가장 좋다. ‘히오’는 יְהִי 를, ‘히요’는 יְהִי 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3) אֱלִיָּדָה 를 사무엘하 5장 16절과 그 평행 구절인 역대상 3장 8절에서는 ‘엘라다’로, 열왕기상 11장 23절과 역대하 17장 17절¹⁵)에서는 ‘엘리아다’로 적었다. ‘리아다’는 רִיאָדָה 나 רִיָּדָה 를 떠올리게 하므로, ‘엘리아다’를 ‘엘라다’로 고쳐 적는 것이 좋다.

(4) אֱלִיָּעִנַי 또는 끝에서 둘째 음절의 장모음이 불완전표기 된 끝인 אֱלִיָּעִנַי (스10:27)를 역대상 4장 36절과 7장 8절, 에스라 10장 22절(//느12:41), 10장 27절에서는 ‘엘료에내’로, 역대상 3장 23절과 24절에서는 ‘에

14) 개역한글판 열왕기 16장 11절에는 ‘우리야’가 한 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히브리 본문에는 הַיְיָאוּ 가 두 번 들어 있다.

15) 그 평행구절인 역대상 14장 7절에는 같은 사람의 이름이 עֲלִיָּדָה (브엘라다)로 나온다.

료에내'의 두 가지로 적었다. 개역한글판에서 음절 끝의 **נ**은 보통 끝소리 **ר**과 그 다음 음절의 첫소리 **ר**로 나누어 적는 것이 보통이므로¹⁶⁾, '에료에내'를 '엘료에내'로 고쳐 적는 것이 좋다.

(5) **אֱלִיאִים**을 열왕기하 18장(18,26,37절)과 19장(2절)에서는 '엘리아김'으로 적지만, 그 평행 본문인 이사야 36장(3,11,22절)과 37장(2절)에서는 '엘리아김'으로 적었다.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이사야 22장 20절에서도 '엘리아김'으로 적었다. 이와는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열왕기하 23장 34절과 그 평행 구절인 역대하 36장 4절과, 또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느헤미야 12장 41절에서도 '엘리아김'으로 적었다. '리아'는 **רִיא**를 떠올리게 하므로, '엘리아김'을 '엘리아김'으로 고쳐 적는 것이 좋다.

(6) 구약 성경에 74번이나 나오면서 서로 다른 일곱 사람의 이름으로 쓰이는 **אֱלִיאָשָׁר**을 사무엘상 7장 1절에서만 '엘리아살'로 적고 나머지 경우, 이를테면 출애굽기 6장 23절, 25절, 28장 1절에서는 '엘르아살'로 적는다. '리아'는 **רִיא**를 떠올리게 하므로, '엘리아살'을 '엘르아살'로 고쳐 적는 것이 좋다.

(7) 서로 다른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쓰이는 **אֲמַרְיָהוּ**나 그 긴 풀인 **אֲמַרְיָהוּ**(왕하14:1; 대상3:12; 대하24:27 등)를 역대상 4장 34절과 6장 45[30]절(두 번)과 역대하 17장 16절에서는 '아마시야'로 적지만, 나머지 경우(왕하 12:21[22]; 13:12; 14:8; 15:3; 대하25:1; 26:1 등)에는 '아마샤'로 적는다. '시아'는 **רִיא**를 떠올리게 하므로, '아마시야'를 '아마샤'로 고쳐 적는 것이 좋다.

(8) 사사기 1장 31절의 **אֲבִיק**을 개역한글판에서는 '아빅'으로 음역했으나, 이것이 여러 사본에서 **אֲבִיק**으로 되어 있는 점과 이 **אֲבִיק**이 나오는 여러 구절(수12:18; 13:4; 19:30; 삼상4:1; 29:1; 왕상20:26,30; 왕하13:17)을 고려한다면, '아벡'으로 고쳐 적는 것이 좋다.

(9) **אֲבִרָה**를 창세기 35장 16,19절, 48장 7절 전반절, 룻기 4장 11절에서는 '에브랏'으로, 미가서 5장 2[1]절과 시편 132편 6절과 역대상 2장 24절, 50절, 4장 4절에서는 '에브라다'로 적는다. 이 가운데에서 역대상 2장 50절과 4장 4절은 실제로 2장 19절의 **אֲבִרָה**과 같은 사람의 이름으로 볼 수 있으므로¹⁷⁾, '에브랏'으로 적는 것이 더 낫다. **אֲבִרָה**가 나머지 경우에는 장소 이름이므로, **אֲבִרָה**를 **אֲבִרָה**에 '방향의 헤'(He locale)가 붙은 꼴로 볼

16) "음역 시안"의 항목 2.2.12.(1-2) ①을 보라.

17) L.Köhler/W.Baumgartner,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Lexikon zum Alten Testament*(Leiden: E.J.Brill, 1967-1995), 78쪽.

수 있다. 이 점은 창세기 48장 7절 후반절에 나오는 אֶפְרַיִם이 전반절의 אֶפְרַתָּה를 뜻한다는 사실로도 뒷받침할 수 있다. 따라서, אֶפְרַתָּה는 ‘에브라트’으로 통일하여 음역할 수 있다.

(10) אֶפְרַתָּה를 역대하 34장 8절에서는 ‘아살랴’로 적고, 그 평행 구절인 열왕기하 22장 3절에서는 ‘아살리야’로 적는다. ‘리야’는 לַיָּהּ를 떠올리게 하므로, ‘아살리야’를 ‘아살랴’로 고쳐 적는 것이 좋다.

(11) בַּבְּבֵי 또는 강세로 마지막 음절의 모음이 길어진 꼴인 בַּבְּבֵי(에2:11; 10:28; 느10:15[16])를 에스라 2장 11절과 그 평행구절인 느헤미야 7장 16절에서는 ‘브배’로, 에스라 8장 11절, 10장 28절, 느헤미야 10장 15[16]절에서는 ‘베배’로 적었다. 이 경우는 히브리 낱말의 첫 모음이 장모음 ‘에’인 만큼 ‘베배’로 통일할 수 있다.

(12) בָּבֶל 또는 ‘방향의 헤’(He Locale)가 붙은 꼴인 בָּבֶלְיָהּ이 구약 성경에 256번이 나오는데, 개역한글판에서는 이를 창세기 10장 10절과 11장 9절에서만 ‘바벨’로 적고, 나머지 경우에는 ‘바벨론’으로 적었다. 그런데, בָּבֶלְיָהּ이 한편으로는 도시를,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또는 왕국의 이름으로 쓰이는데, 개역한글판에서는 한편으로 도시를 가리킬 경우에도 앞에서 말한 창세기의 두 구절을 뺀 나머지 경우에는 ‘바벨론’으로 적고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든 나라이든 구별하지 않고 그냥 ‘바벨론’으로 적었다. 따라서, 도시를 가리킬 때는 ‘바벨’로, 지역 또는 왕국을 가리킬 때는 ‘바벨론’으로 두 경우를 구별해 적을 수도 있겠으나, 당분간은 두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한결같이 ‘바벨론’으로 적는 것이 더 나아 보인다¹⁸⁾.

(13) בְּדָן을 사무엘상 12장 11절에서는 ‘베단’으로, 역대상 7장 17절에서는 ‘브단’으로 적었다. 소리가 나는 단순 불명료모음(שׁוֹא)을 개역한글판에서는 보통 모음 ‘ㅡ’로 적으므로¹⁹⁾, ‘베단’은 ‘브단’으로 고쳐 적는 것이 좋다.

(14) בֵּית־צֹר을 여호수아 15장 58절에서는 ‘벵술’로, 역대하 11장 7절과 느헤미야 3장 16절에서는 ‘벵술’로, 역대상 2장 45절에서는 ‘벵술’로 적는다. בֵּית가 앞에 붙는 지명을 한글개역판에서 음역하는 일반 방식을 따라²⁰⁾, ‘벵술’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

(15) בֵּית־רְחוֹב을 사사기 18장 28절에서는 ‘베드르홉’으로, 사무엘하 10장 6절에서는 ‘벵르홉’으로 적었다. 이 경우도 בֵּית가 앞에 붙는 지명을 한

18) 우리말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도시는 ‘바빌론’으로, 지역 또는 나라는 ‘바빌로니아’로 적는다.

19) “음역 시안”의 항목 1.3.(1)을 보라. 아래 2.(33), (39), (46), (63)도 마찬가지로의 경우이다.

20) “음역 시안”의 항목 2.2.23.(2)①을 보라.

글개역판에서 음역하는 일반 방식을 따라, ‘베드르훅’은 ‘벤르훅’으로 고쳐 적는 것이 좋다.

(16) שָׁן בְּיַחַד이나 שָׁן בְּיַחַד(삼하21:12)을 사무엘상 31장 10절과 12절에서는 ‘벤산’으로, 사무엘하 21장 12절에서는 ‘벳산’으로 적었다. 이 경우도 앞의 경우처럼 בְּיַחַד가 앞에 붙는 지명의 일반적인 음역 방식을 따라, ‘벳산’은 ‘벤산’으로 고쳐 적는 것이 좋다. 한편 이와 같은 곳을 가리키는 שָׁן בְּיַחַד(수 17:11,16; 삿1:27; 왕상4:12; 대상7:29)을 ‘벤 스안’으로 적었는데, 이는 위 1(3)에서 말한 철자가 다른 경우이므로 굳이 앞의 두 경우에 맞추어 음역할 필요는 없으나, 다만 ‘벤스안’으로 붙여 적는 것이 좋다.

(17) מַלְאָכָיו나 마지막 모음이 강세 때문에 길어진 꼴인 מַלְאָכָיו(삼하 19:34)를 사무엘하 17장 27절, 19장 32절, 33절, 34절, 35절, 40절에서는 ‘바르실래’로,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열왕기상 2장 7절과 이와는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사무엘하 21장 8절에서는 ‘바실래’로 적었다. 또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에스라 2장 61절과 그 평행 구절인 느헤미야 7장 63절에서는 ‘바르실래’로 적었다. ‘바실래’에는 ㄹ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고, 한글개역판에서는 낱말 끝이 아닌 음절 끝의 ㄹ은 ‘르’로 표시하여 ㄴ과 구별하는 것이 보통이므로²¹⁾, ‘바실래’는 ‘바르실래’로 고쳐 적는 것이 좋다.

(18) הַדָּלִיָּא나 그 짧은 꼴인 הַדָּלִיָּא를 열왕기하 25장 22-25절에서는 ‘그달리야’로, 이와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예레미야 39장 14절, 40장 5-9절, 41장 1-18절, 43장 6절에서는 ‘그다랴’로 적었다. 이와는 각각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예레미야 38장 1절, 스바냐 1장 1절에서도 ‘그다랴’로, 역대상 25장 3절과 9절에서는 ‘그달리야’로, 에스라 10장 18절에서는 ‘그달랴’로 적었다. 그런데, ‘그다랴’는 הַדָּרִיָּא나 הַדָּרִיָּא를, ‘그달리야’는 הַדָּלִיָּא나 הַדָּלִיָּא를 떠올리게 하므로, 이 모두를 ‘그달랴’로 통일하여 적는 것이 가장 좋다.

(19) 모세의 아들(출2:22; 18:3; 삿18:30; 대상23:15,16; 26:24) ‘게르솜’(גֵּרְשֹׁם/ גֵּרְשֹׁם)과 비느하스의 자손(스8:2) ‘게르솜’(גֵּרְשֹׁם)은 레위의 아들인 ‘게르솜’²²⁾과는 달리 ‘게르손’으로 불리지 않는데도 개역한글판 사사기 18장 30절에서 גֵּרְשֹׁם을 ‘게르손’으로 적은 것은 잘못이다. 이는 바로 잡아야 한다.

(20) 사무엘하 23장 9절의 דָּדִי(‘도대’)를 마소라 학자들은 뒤이어 24절에서 같은 사람의 이름이 דָּדִי(도도)인 점을 고려하여 דָּדִי로 읽을 것을 제안한다. 이는 이른바 <크레>(קרי)의 한 보기이다. 개역한글판에서는 9절의 경

21) “음역 시안”의 항목 2.2.20.(2)②를 보라.

22) 위 1.(4)①을 보라.

우 마소라 자음 본문 그대로, 곧 <크팁>(כתיב)을 따라 읽어 ‘도대’로 음역 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24절의 וְהָיָה와 어긋나므로 차라리 <크레>를 따라 ‘도도’로 음역하는 것이 좋다²³⁾.

(21) וְהָיָה나 그 긴 풀인 וְהָיָה(왕하15:8; 대상15:18; 대하5:7; 시8:2 등)를 열왕기하 18장 2절에서는 ‘스가리야’로 적지만,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역대하 29장 1절과 그밖에 여러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다른 경우(왕하 14:29; 대하21:2; 24:20; 26:5; 스8:3; 느8:4; 사8:2; 숙1:1 등)에는 ‘스가랴’로 적는다. ‘리야’는 וְהָיָה를 떠올리게 하므로, ‘스가리야’를 ‘스가랴’로 고쳐 적는 것이 좋다.

(22) וְהָיָה를 여호수아 19장 34절에서는 ‘혹곡’으로, 역대상 6장 75[60]절에서는 ‘후곡’으로 적었다²⁴⁾. 그런데, ‘혹곡’은 וְהָיָה를 떠올리게 하므로, ‘혹곡’을 ‘후곡’으로 고쳐 적는 것이 좋다.

(23) וְהָיָה를 민수기 31장 8절에서는 ‘후르’로 적지만, 그 평행 구절인 여호수아 13장 21절에서는 ‘홀’로 적는다. 이와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느헤미야 3장 9절에서 ‘후르’로 음역하나, 그밖에 서로 다른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구절(출17:10,12; 24:14; 31:2; 35:30; 38:22; 대상2:19,20,50; 4:1,4; 대하1:5)에서는 한결같이 ‘홀’로 적는다. 그런데, 한글개역판에서는 낱말 끝이나 음절 끝의 ㄱ을 ㄴ과 구별하여 ‘르’로 적는 수가 많다²⁵⁾. 그리하여, וְהָיָה를 וְהָיָה와 구별하려면²⁶⁾, ‘홀’은 ‘후르’로 고쳐 적는 것이 좋다. 또한 이에 맞추어 열왕기상 4장 8절에서 וְהָיָה(וְהָיָה의 아들)를 ‘벤홀’로 음역한 것도 ‘벤후르’로 고치는 것이 좋다.

(24) וְהָיָה와 관사가 붙은 풀인 וְהָיָה(민14:45)를 여호수아 15장 30절과 사무엘상 30장 30절에서만 ‘홀마’로 적고, 나머지 경우(민14:45; 21:3; 신 1:44; 수12:14; 19:4; 삿1:17; 대상4:30)에는 ‘호르마’로 적는다. 바로 앞 항목 (23)에서 언급했듯이, 음절 끝의 ㄱ을 ㄴ과 구별하려면, ‘르’로 적는 한글개역판의 일반 경향을 따라, ‘홀마’는 ‘호르마’로 고쳐 적는 것이 좋다.

(25) וְהָיָה나 그 복수형인 וְהָיָה(시42:6[7])을 신명기 3장 9절, 4장 48절, 여호수아 11장 3절, 17절, 12장 1절, 5절, 13장 5절, 11절, 역대상 5장

23) 이는 역대상 6장에서 첫머리 וְהָיָה에 맞추기 위해 뒤이어 나오는 וְהָיָה이나 וְהָיָה를 한글개역판에서 ‘게르손’으로 적은 경우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경우이다.

24) BHS 비평판에서는 평행 구절인 여호수아 21장 31절에 맞추어 וְהָיָה를 וְהָיָה로 고쳐 읽을 것을 제안한다.

25) “음역 시안”의 항목 2.2.12.(2)①과(3), 또 2.2.20.(2)②와 (3)을 보라.

26) 아래 2.(24), (25), (34), (38), (54), (57), (61)도 마찬가지로의 경우이다.

23절, 시편 42편 6[7]절, 89편 12[13]절, 아가 4장 8절에서는 ‘헤르몬’으로, 시편 133편 3절에서는 ‘헬몬’으로 적었다. 우리말 모음 ‘니’에 해당하는 히브리 모음이 없고 음절 끝의 ㄱ은 ‘르’로 적는 일반 경향을 따라, ‘헬몬’은 ‘헤르몬’으로 고쳐 적는 것이 좋다.

(26) אֶרְצָא를 사무엘하 23장 35절에서는 ‘헤스래’로 적지만, 역대상 11장 37절에서는 ‘헤스로’로 적는다. 사무엘하 23장 35절의 경우에만 그 <크레>를 따라 읽은 것이다. 역대상 11장 37절의 אֶרְצָא가 칠십인역과 수리아역에는 ‘헤스래’로 되어 있어, 이 경우도 사무엘하 23장 35절의 <크레>처럼 ‘헤스래’로 적을 수 있다.

(27) אֶרְצָא를 열왕기하 25장 23절에서는 ‘야아사냐’로²⁷⁾, 에스겔 8장 11절에서는 ‘야아사냐’로 적었다. ‘냐’는 אֶרְצָא를 떠올리게 하므로, ‘야아사냐’를 ‘야아사냐’로 고쳐 적는 것이 좋다.

(28) אֶרְצָא(슌6:10)와 그 긴 풀인 אֶרְצָא(왕상13:2; 왕하21:24; 대상3:14; 대하35:19; 램1:2; 슌1:1 등 모두 52번)을 스바냐 1장 1절과 스가랴 6장 10절에서만 ‘요시아’로 적고, 나머지 경우에는 한결같이 ‘요시아’로 적는다. ‘시아’는 אֶרְצָא나 אֶרְצָא를 떠올리게 하므로, ‘요시아’를 ‘요시아’로 고쳐 적는 것이 좋다.

(29) אֶרְצָא를 사사기 19장 10절과 11절에서는 ‘여부스’로, 역대상 11장 4절과 5절에서는 ‘여브스’로 적었다. 히브리 낱말의 둘째 모음이 장모음 ‘ㅓ’이므로 ‘여부스’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 또, אֶרְצָא나 אֶרְצָא(삼하5:6,8; 24:16,18; 대상 21:18)를 역대상 11장 4절과 6절에서는 각각 ‘여브스 토인’과 ‘여브스 사람’으로 적었는데, 이 때의 ‘여브스’는 그 각각의 평행 구절인 사무엘하 5장 6절과 8절의 경우처럼 ‘여부스’이라고 고쳐 적는 것이 좋다²⁸⁾.

(30) אֶרְצָא를 역대상 26장 2절에서만 ‘여디아엘’로 옮기고, 나머지 경우(대상7:6,10,11; 11:45; 12:20[21])에는 모두 ‘여디아엘’로 적는다. ‘야엘’은 אֶרְצָא나 אֶרְצָא를 떠올리게 하므로, ‘여디아엘’을 ‘여디아엘’로 고쳐 적는 것이 좋다.

(31) 서로 다른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쓰이는 אֶרְצָא를 한결같이 ‘요하난’(왕하25:23; 대상3:15,24; 6:9[5:35]; 6:10[5,36]; 12:4[5],12[13]; 스8:12; 느

27) 그 평행 구절인 예레미야 40장 8절과 42장 1절에서는 אֶרְצָא(여사냐)로 되어 있다.

28) 역대상 11장 4절과는 달리 사무엘하 5장 6절과 8절에서 종족을 나타내는 어미 ‘.’를 한결 같이 ‘사람’으로 옮긴 것은 위 1.(5)에서 말한 바처럼 번역의 문제이지, 음역의 문제는 아니다.

12:22,23; 렘40:8,13,15,16; 41:11,13,14,15,16; 42:1,8; 43:2,4,5)로, 또 그 긴 풀인 **קָנָה**을 대체로(스10:6, 28; 느6:18; 12:13,42; 대상26:3 ; 대하17:15; 23:1) ‘여호하난’으로 적는다. 이 둘은 굳이 통일할 필요는 없지만²⁹⁾, 한 군데 역대하 28장 12절의 **קָנָה**을 특별한 까닭 없이 ‘요하난’으로 적은 것은 ‘여호하난’으로 고쳐 적어야 한다.

(32) **אֶשְׁכֶּל**을 에스겔 1장 3절과 24장 24절에서는 ‘에스겔’로, 이와는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역대상 24장 16절에서는 ‘여헤스겔’로 적었다. ‘여헤스겔’이 히브리 낱말의 발음에 더 가깝지만, 이미 널리 쓰이고 있는 ‘에스겔’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

(33) **אַשְׁמֶל**을 창세기 46장 24절에서는 ‘야스엘’로, 민수기 26장 48절에서는 ‘야셀’로 적었다³⁰⁾. **א** 아래의 불명료모음(**אָ**)의 소리값³¹⁾을 살리자면 ‘야스엘’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 이에 따라 민수기 26장 48절의 **אַשְׁמֶלִי**를 ‘야셀 가족’으로 적은 것도 ‘야스엘 가족’으로 고쳐 적어야 한다.

(34) **אֲדוּר**을 창세기 25장 15절과 역대상 1장 31절에서는 ‘여둘’로, 역대상 5장 19절에서는 ‘여두르’로 적는다. 이 이름을 **אֲדוּר**과 구별하려면³²⁾, ‘여두르’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

(35) **נִינְיָה**와 그 긴 풀인 **נִינְיָהוּ**(렘24:1)를 역대상 3장 16절, 17절, 에스더 2장 6절,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는 ‘여고냐’로, 예레미야 27장 20절, 28장 4절, 29장 2절에서는 ‘여고니야’로 적는다. ‘니야’는 **יָ**를 떠올리게 하므로, ‘여고니야’를 ‘여고냐’로 고쳐 적는 것이 좋다.

(36) **אֲבִיָּא**를 역대상 3장 7절에서는 ‘야비아’로 적지만,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사무엘하 5장 15절과 또 다른 경우를 가리키는 여호수아 10장 3절과 19장 12절에서는 ‘야비아’로 적는다. 낱말의 마지막 모음은 ‘도입 파타흐’(patach furtivum)이고 그 앞 모음은 완전표기된 장모음 ‘|’이므로, ‘야비아’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

(37) **אֶתֶל**을 사사기 8장 20절에서만 ‘여텔’로 적고, 나머지 경우(왕상2:5, 32; 대상2:17³³⁾; 4:17)에서는 모두 ‘예텔’로 적는다. ‘여텔’의 ‘여’는 **יָ**를 떠올리게 하므로³⁴⁾, ‘예텔’로 고쳐 적는 것이 좋다³⁵⁾.

29) 위 1.(3)②와 견주어 보라.

30) 역대하 7장 13절에서는 이 이름이 **אַשְׁמֶלִי**(야시엘)로 나오는데, 몇몇 사본에서는 이것이 **אַשְׁמֶל**로 되어 있다.

31) 위 2.(13)와 아래 2.(39), (46), (63)도 마찬가지 경우이다.

32) 위 2.(23), (24), (25), 아래 2.(38), (54), (57), (61)도 마찬가지의 경우이다.

33) 열왕기상 2장 5절과 32절과 역대상 2장 17절의 **אֶתֶל**를 사무엘하 17장 25절에서는 **אֶתֶרָא**(이드라)라고 부른다.

(38) מְרַמֵּי를 역대상 2장 7절에서는 ‘가르미’로, 이와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여호수아 7장 1절과 18절과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창세기 46장 9절, 출애굽기 6장 14절, 민수기 26장 6절(두 번), 역대상 5장 3절에서는 ‘갈미’로 적었다. 음절 끝의 ר을 ל과 구별하여 ‘르’로 적는 개역한글판의 일반 경향을 따라서³⁶⁾, ‘갈미’를 ‘가르미’로 고쳐 적는 것이 좋다.

(39) לֹא־רָבָרְבָה(삼하17:27)이나 לֹא־רָבָרְבָה(삼하9:4,5)을 사무엘하 9장 4절, 5절에서는 ‘로드발’로,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는 ‘로데발’로 적었다³⁷⁾. 소리는 단순 불명료모음을 보통 ‘-’로 적는 한글개역판의 전통을 따라³⁸⁾, ‘로데발’은 ‘로드발’로 고쳐 적는 것이 좋다.

(40) חָלְרוֹחֵס를 느헤미야 3장 12절에서는 ‘할로헤스’로, 10장 24[25]절에서는 ‘할르헤스’로 적었다. 둘째 모음이 장모음 ‘-’이므로, ‘할로헤스’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

(41) מַדָּנָה 그 마지막 음절에 강세가 붙어서 모음이 길어진 꼴인 מַדָּנָה(사 13:17; 렘25:25; 단9:1)를 보통은 ‘메대’로 적지만(왕하17:6; 사21:2; 렘25:25; 단8:20 등), 창세기 10장 2절과 역대상 1장 5절에서는 ‘마대’로 적었다. 히브리 발음에는 ‘마대’가 더 가깝지만, ‘메대’가 이미 널리 쓰이고 있으므로, ‘메대’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

(42) מִישָׁא를 창세기 36장 13절과 17절에서는 ‘미사’로,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역대상 1장 37절에서는 ‘밋사’로 적었다. ʾ에 찍힌 dagesh forte를 음역하는 개역한글판의 일반 전통에 따라서³⁹⁾, ‘미사’를 ‘밋사’로 고쳐 적는 것이 좋다⁴⁰⁾.

(43) מַחְלִי를 ‘마홀리’(출6:19; 대상23:21,23; 24:26,28,30)나 ‘말리’(민 3:20,33; 26:58; 대상6:19[4], 29[14], 47[32]; 스8:18)로 적는다. 첫 음절 끝 소리 ך의 소리값을 살려 적으려면, ‘마홀리’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

34) “음역 시안”의 항목 2.2.10 (1-1) ⑥을 보라.

35) 위 2.(23), (24), (25), (34), 아래 2.(38), (54), (57), (61)의 경우에 맞춘다면, ר도 ‘에테르’로 음역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만, 이 글에서 제시하려는 것은 한글개역판 구약 전서의 히브리어 고유명사 음역의 전면 개정안이 아니고, 그저 한 고유명사를 여러 가지로 음역하는 경우의 통일안이므로, ר은 ‘에테르’로 통일하여 음역할 것을 제안할 따름이다.

36) 위 2.(23), (24), (25), (34), 아래 (54), (57), (61)도 마찬가지로의 경우이다.

37) 여호수아 13장 26절에 나오는 מַחְלִי를 BHS 비평판에서는 מַחְלִי(ל)로 고쳐 읽을 것을 제안한다. 또 아모스 6장 13절의 מַחְלִי לֹא를 개역한글판에서는 ‘허무한 것’으로 옮겼다.

38) 위 2.(13), (33), 아래 (46), (63)도 마찬가지로의 경우이다.

39) “음역 시안”의 항목 2.3.(4)를 보라.

40) “음역 시안”의 항목 2.2.7.(4) ①을 보라.

(44) מֶלֶךְ(왕상11:7)이나 관사가 붙은 풀인 מֶלֶךְ־עַל(레위기 18장 21절, 20장 2절, 3절, 4절, 5절, 예레미야 32장 35절에서는 ‘몰렉’으로, 열왕기상 11장 7절과 열왕기하 23장 10절에서는 ‘몰록’으로 적었다. 마지막 음절의 모음이 단모음 ‘에’이므로, ‘몰렉’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

(45) מְעֻנִים을 역대상 4장 41절 <크레>(크팁: מְעֻנִים)에서는 ‘모우님 사람’으로, 역대하에서는 26장 7절에서는 ‘마은 사람’으로, 에스라 2장 50절 <크레>(크팁:מְעֻנִים)와 느헤미야 7장 52절에서는 ‘므우님’으로 번역했다. 에스라 2장 50절의 경우에 개역한글판이 이미 <크레>를 따라 ‘므우님’으로 음역했다면 역대상 4장 41절의 경우에도 <크레>를 따라 ‘므우님 사람’으로 고쳐 적어도 괜찮겠다. 다만 역대하 26장 7절의 ‘마은 사람’도 ‘므우님 사람’으로 바꿀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아 보인다.

(46) מְשֻׁלֵּמוֹת을 느헤미야 11장 13절에서는 ‘므실레못’으로, 역대하 28장 12절에서는 ‘무실레못’으로 적는다⁴¹⁾. 소리나는 단순 불명료모음은 ‘ㅡ’로 적는 개역한글판의 일반적인 경향을 따라⁴²⁾, ‘므실레못’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

(47) מַתְנִיחַ나 그 긴 풀인 מַתְנִיחוֹ(대상25:4,16; 대하29:13)을 열왕기하 24장 17절에서는 ‘맛다니야’로 적고, 나머지 경우(대상9:15; 25:4,16; 대하 20:14; 29:13; 스10:26,27,30,37; 느11:17,22; 12:8,8,25,35; 13:13)에는 ‘맛다나’로 적는다. ‘니야’는 מַתְנִיחַ를 떠올리게 하므로, ‘맛다니야’를 ‘맛다나’로 고쳐 적는 것이 좋다.

(48) מַתְתִּיחַ나 그 긴 풀인 מַתְתִּיחוֹ(대상15:18,21; 25:3, 21)을 역대상 15장 18절, 21절, 25장 3절, 21절, 에스라 10장 43절에서는 ‘맛디디아’로, 역대상 9장 31절과 느헤미야 8장 4절에서는 ‘맛디다’로, 역대상 16장 5절에서는 ‘맛디디아’로 적었다. ‘디아’와 ‘디아’는 각각 תִּיחַ 또는 תִּיחַ와 תִּיחַ를 떠올리게 하므로, 이 모두를 ‘맛디다’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

(49) מְעֻרִיָּה나 그 긴 풀인 מְעֻרִיָּהוּ(왕상4:2; 왕하15:6; 대하26:17 등)가 구약 성경에 모두 49번 나오고 서로 다른 열 사람 이상의 이름으로 쓰이는데, 이 이름을 보통은 ‘아사랴’로 적지만(왕하14:21; 대상6:36[21]; 대하22:6; 느 3:23; 렘43:2; 단1:6 등), 열왕기상 4장 2절과 5절에서는 ‘아사리아’로 적었다. ‘리아’는 מְעֻרִיָּה나 מְעֻרִיָּה를 떠올리게 하므로, ‘아사리아’는 ‘아사랴’로 고쳐 적는 것이 좋다.

(50) מְעֻרִיָּה나 두 낱말 사이에 이음줄을 친 풀인 מְעֻרִיָּה(수19:21)을

41) 역대상 9장 12절에는 ‘므실레밧’(מְשֻׁלֵּמוֹת)으로 나온다.

42) 위 2.(13), (33), (39), 아래 (63)도 그런 경우이다.

여호수아 15장 34절에서는 ‘엔간님’으로, 이와는 다른 곳을 가리키는 19장 21절과 21장 29절에서는 각각 ‘언간님’과 ‘언 간님’으로 적었다. 첫 낱말의 모음이 장모음 ‘ַ’이고 두 낱말이 한데 어우러져서 한 장소를 가리키므로, ‘엔간님’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

(51) **עֵינֵי רֹגֶל**을 여호수아 15장 7절에서는 ‘엔로겔’로, 18장 16절에서는 ‘엔 로겔’로, 사무엘하 17장 17절과 열왕기상 1장 9절에서는 ‘에느로겔’로 적었다. 첫 낱말의 마지막 자음인 **נ**은 우리말 끝소리 ‘ㄴ’으로 옮기면 충분하고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두 낱말이 한데 어우러져서 한 장소를 가리키므로, ‘엔 로겔’과 ‘에느로겔’은 ‘엔로겔’로 고치는 것이 좋다.

(52) 사무엘하 13장 37절의 **עַמִּיהוּרָה**을 개역한글판에서는 ‘암미홀’로 음역했으나, 이는 여러 사본과 <크레>를 따라 ‘암미훗’(민1:10; 2:18; 7:48,53; 10:22; 34:20,28; 대상7:26; 9:4)으로 고쳐 적는 것이 좋다.

(53) **עַמְשֵׁי**나 그 마지막 모음이 강세 때문에 길어진 풀인 **עַמְשֵׁי**(대상6:20)을 역대상 6장 25[10]절, 35[20]절, 12장 18[19]절, 역대하 29장 12절에서는 ‘아마새’로 적고, 역대상 15장 24절에서는 ‘아미새’로 적는다. 히브리 낱말의 둘째 모음이 ‘א’이므로, ‘아미새’는 ‘아마새’로 바로잡아야 한다.

(54) **עֵר**를 창세기 38장 3절, 6절, 7절, 46장 12절(두 번)에서는 ‘엘’로, 같은 사람을 민수기 26장 19절(두 번)과 역대상 2장 3절(두 번)에서는 ‘에르’로 적는다. 또 이와는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역대상 4장 21절에서도 ‘에르’로 적는다. **עֵר**를 **עַל**과 구별하려면⁴³⁾, ‘에르’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

(55) **עַרְבֵי**를 이사야 13장 20절에서는 ‘아라비아 사람’으로, 예레미야 3장 2절에서는 ‘아라바 사람’으로 번역했다. 이 두 구절의 경우에는 **עַרְבֵי**가 종족 개념보다는 광야에서 활동하는 유목민의 생활방식을 암시하므로, ‘아라비아 사람’보다는 ‘아라바 사람’으로 통일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인다. ‘아라비아 사람’을 뜻하는 히브리 낱말로는 **עַרְבֵי**가 있다⁴⁴⁾.

(56) 장소 이름으로나 사람 이름으로 쓰이는 **בְּנוֹאֵל**을 보통은 ‘브누엘’로 적는데(삿8:8,8,9,17; 대상4:4; 8:25),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는 ‘부느엘’로, 창세기 32장 31[32]절에서는 ‘브니엘’로 적었다. 마지막 경우는 그 바로 앞 절인 30[31]절의 ‘브니엘’(בְּנִיֵּאל)과 맞추기 위해 개역한글판에서 그렇게 음역한 것으로 보인다⁴⁵⁾. 히브리 모음으로 보면, ‘브누엘’로 통일할 수 있다.

43) 위 2.(23), (24), (25), (34), (38), 아래 2.(57), (61)도 같은 경우이다.

44) **עַרְבֵי**(느2:19; 6:1)나 그 복수형인 **עַרְבֵיב**(대하21:16; 22:1; 26:7; 느4:7[1])을 개역한글판에서 한결같이 ‘아라비아 사람’(대하17:11; 21:16; 22:1; 26:7; 느2:19; 4:7[1]; 6:1)으로 옮겼다.

45) 이는 위 1.(4)의 또 다른 보기이다.

(57) 사람 이름 שׂוּר을 민수기 25장 15절과 31장 8절에서는 ‘수르’로, 여호수아 13장 21절과 역대상 8장 30절과 9장 36절에서는 ‘술’로 적는다. 이 이름을 שׂוּר과 구별하려면⁴⁶⁾, ‘수르’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

(58) רָבָּה나 ‘방향의 헤’가 붙은 풀인 רָבָּה(삼하12:29)나 관사가 붙은 풀인 רָבָּה(수15:60)를 그것이 암몬의 수도를 가리킬 때는 ‘랍바’로 적는데, 이와는 다른 곳을 가리키는 여호수아 15장 60절에서는 ‘라빠’로 적었다. 한글개역판에서는 히브리 고유명사 음역에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라빠’를 ‘랍바’로 고쳐 적는 것이 좋다.

(59) רָבָּה나 관사가 붙은 풀인 רָבָּה(민34:11)나 ‘방향의 헤’(He locale)가 붙은 풀인 רָבָּה(왕하25:6,20; 렘39:5; 52:9,10,26⁴⁷⁾)을 민수기 34장 11절에서만 ‘리블라’로 적고, 나머지 경우(왕하23:33; 25:6,20,21; 렘39:5,6; 52:9,10,26,27)에는 모두 ‘립나’로 적었다. ‘립나’로 음역할 수 있는 지명 רָבָּה는 따로 있으므로⁴⁸⁾, 위의 경우는 모두 ‘리블라’로 바꾸어 통일하는 것이 좋다.

(60) רָבָּה를 열왕기하 15장 25절, 27절, 30절, 32절, 37절, 16장 1절, 5절, 역대하 28장 6절에서는 ‘르말라’로 적고, 이사야 7장 1, 4, 5, 9절, 8장 6절에서는 ‘르말리야’로 적었다. ‘리야’는 רָבָּה를 떠올리게 하므로, ‘르말리야’를 ‘르말라’로 고쳐 적는 것이 좋다.

(61) שׂוּר나 ‘방향의 헤’(He locale)가 붙은 풀인 שׂוּר(삼상27:8)를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는 ‘수르’로 적지만, 나머지 경우(창16:7; 20:1; 25:18; 삼상15:7; 27:8)에는 ‘술’로 적는다. 그렇지만, 이를 שׂוּר과 구별하려면⁴⁹⁾, ‘수르’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

(62) שׂוּר을 창세기 36장 36절과 37절에서는 ‘삼라’로, 역대상 1장 47절과 48절에서는 ‘사물라’로 적었다. 낱말의 첫머리가 아닌 음절의 첫머리에 오는 ל가 불명료모음(이 경우에는 ‘무성 <쉬와>’임) 바로 뒤에 있을 때에는 받침 <ㄹ>과 다음 음절의 첫소리 <ㄹ>로 나누어 적는 개역한글판의 일반적인 경향을 따라⁵⁰⁾, ‘사물라’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

(63) 지역 또는 사람의 이름인 שׂוּר을 예레미야 6장 20절에서는 ‘시바’⁵¹⁾

46) 위 2.(23), (24), (25), (34), (38), (54), 아래 (61)도 마찬가지로의 경우이다.

47) 에스겔 6장 14절의 רָבָּה를 더러 רָבָּה로 고쳐 읽기도 한다. BHS 비평판을 보라.

48) 민수기 33장 20절과 21절, 여호수아 10장 29절 등에 나온다.

49) 위 2.(23), (24), (25), (38), (54), (57)도 마찬가지로의 경우이다.

50) “음역 시안”, 2.2.12. (1-2)를 보라.

51) 예레미야 6장 20절의 שׂוּר말고 개역한글판에서 ‘시바’로 음역하는 히브리 고

로 적지만, 다른 경우(창10:7후, 28; 왕상10:1; 대상1:32; 대하9:1; 욥1:15; 시 72:10⁵²); 사60:6; 겔27:22 등)에는 모두 ‘스바’로 적는다⁵³). 소리나는 단순 불명료모음을 개역한글판에서는 보통 ‘ㅍ’로 음역하므로⁵⁴), ‘스바’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

(64) שָׁבָא를 사사기 9장 50절(두 번)에서는 ‘데베스’로, 사무엘하 11장 21절에서는 ‘데벳스’로 적었다. ‘베’에 굳이 받침 ‘ㅍ’을 붙일 까닭이 없으므로, ‘데베스’로 통일할 수 있다.

3. 한글개역판 구약 전서의 고유명사 음역 통일 제안 일람표

아래 교정 제안 일람표에서 알 수 있듯이, 필자의 개정 제안 가운데 상당한 부분이 이미 공동번역이나 표준새번역개정판이나 개역개정판에 반영되어 있기는 하나, 그 어느 번역본도 이를 체계적으로 다루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체적으로는 공동번역이 그래도 통일된 음역 표기에 주의를 많이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인지 공동번역개정판에서는 위에서 다룬 64 경우에 공동번역의 음역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개역한글판의 음역 방식을 거의 그대로 따르는 표준새번역과는 달리, 표준새번역개정판에서는 공동번역을 참고하면서 여러 경우에 표준새번역의 음역을 교정하고 있다. 개역개정판과 표준새번역이 한글개역판의 음역을 고친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유명사로는 שָׁבָא(대상4:16)와 שָׁבָאָה나 שָׁבָא (삼하9:2,2,3,4,9,10,11,12; 16:1,2,2,3,4,4; 19:17[18],29[30])과 שָׁבָא(시72:10절)이 있다.

52) 시편 72편 10절의 ‘스바’ 다음에 나오는 ‘시바’는 히브리 지명 שִׁבָּא의 음역이다. 이 שִׁבָּא가 창세기 10장 7절 전반절과 역대상 1장 9절 전반절과 이사야 43장 3절에서는 ‘스바’로 음역되어 있다.

53) שָׁבָא라고 개역한글판에서 ‘스바’로 음역하는 히브리 고유명사로는 바로 앞 각주에서 언급한 שָׁבָא가 있다. 창세기 10장 7절과 그 평행 구절인 역대상 1장 9절에는 각각 전반절에 שָׁבָא가, 후반절에 שָׁבָא가 나오는데, 개역한글판에서 이 둘을 구별하지 않고 한결같이 ‘스바’로 옮김으로써, 분명히 다른 두 사람의 이름이 우연히도 같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이는 히브리 자모 ש와 ש를 마찬가지로 ‘ㅍ’으로 적는 개역한글판 음역 방식의 한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이다.

54) 위 2.(13), (33), (39), (46)도 마찬가지로의 경우이다.

장절 개역한글판의 표기 교정 제안 다른 공인한글번역본의 개정 내용⁵⁵⁾

1. 창10:2	마대	메대	공*: 메대
2. 창10:10	바벨	바벨론	표*: 바빌론
3. 창11:9	바벨	바벨론	표*: 바벨56)
4-5. 창16:7; 20:1	술	수르	공*/표개: 수르
6. 창25:15	여둘	여두르	표개: 여두르, 공*: 여틀
7. 창25:18	술	수르	공*/표개: 수르
8-9. 창36:13,17	미사	밋사	표개: 밋사, 공*: 미짜
10-11. 창36:36,37	삼라	사물라	공*: 사물라
12-14. 창38:3,6,7	엘	에르	공*/표개: 에르
15. 창46:9	갈미	가르미	공*: 가르미
16-17. 창46:12,12	엘	에르	공*/표개: 에르
18. 출6:14	갈미	가르미	공*: 가르미
19-24. 출17:10,12; 24:14; 31:2; 35:30; 38:22	홀	후르	공*: 후르
25-26. 민3:20,33	말리	마홀리	공*/표*: 마홀리
27-28. 민26:6,6	갈미	가르미	공*: 가르미
29-30. 민26:48,48	야셀	야스엘	표개: 야스엘, 공*: 야하스엘
31. 민26:58	말리	마홀리	공*,표*: 마홀리
32-33. 수7:1,18	갈미	가르미	공*: 가르미
34. 수13:21	술	수르	공*/표*: 수르
35. 수13:21	홀	후르	공*: 후르
36. 수15:30	홀마	호르마	공*/표개: 호르마
37. 수15:58	벧 술	벧술	공*/표*: 벧술
38. 수15:60	랍바	랍바	개개/표개: 랍바
39-40. 수17:11,16	벧 스안	벧스안	공*/표: 벧스안, 표개: 벧산
41. 수18:16	엔 로겔	엔로겔	공*/표*: 엔로겔
42. 수19:21	엔간님	엔간님	개개: 엔 간님, 공*: 엔간님
43. 수19:34	후곡	후곡	공*: 후곡
44. 수21:29	엔 간님	엔간님	개개: 엔 간님, 공*: 엔간님

55) ‘개개’, ‘표’, ‘표개’, ‘공’, ‘공개’는 각각 개역개정판, 표준새번역, 표준새번역개정판, 공동번역, 공동번역개정판을 가리키고, ‘표표*’는 표준새번역과 표준새번역개정판이 같은 경우를, ‘공*’는 공동번역과 공동번역개정판이 같은 경우를 가리킨다. 대조에 이끌어 쓴 번역본은 『굿뉴스스터디 바이블 개역개정판』(서울: 대한성서공회, 2000), 『성경전서 표준새번역』(서울: 대한성서공회, 1993), 『해설판 공동번역 성서』(국제가톨릭성서공회 편찬, 광주: 도서출판 일과 놀이, 1995), 『공동번역성서개정판』(서울: 대한성서공회, 1999),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개정판』(서울: 대한성서공회, 2001)이다.

56) 난하주에 ‘바빌론을 가리킴’이라 적어 놓았다.

45. 사1:27	벤 스안	벤스안	개개: 벤스안, 공*/표: 벳스안, 표개: 벳산
46. 사1:31	아빅	아백	표개: 아백
47. 사8:20	여텔	예텔	공*/표개: 예텔
48. 사18:28	베드르흙	벤르흙	공*: 벳르흙
49. 사18:30	게르손	게르숨	개개/공*: 게르숨
50. 삼상7:1	엘리아살	엘르아살	공*: 엘르아잘
51. 삼상12:11	베단	브단	공*: 바락
52-53. 삼상15:7; 27:8	술	수르	공*/표개: 수르
54. 삼상30:30	홀마	호르마	공*/표개: 호르마
55-70. 삼하11:3,6,6,7,8,8,9,10,10,11,12,12,14,15,16,17			
	우리아	우리아	공*: 우리아 ⁵⁷⁾
71. 삼하11:21	테벳스	테베스	공*: 테베스
72-78. 삼하11:21,24,26,26; 12:9,10,15			
	우리아	우리아	공*/표개: 우리아
79. 삼하13:37	암미홀	암미훗	공*/표개: 암미훗
80. 삼하17:17	에느로겔	엔로겔	공*: 엔로겔, 표개: 엔 로겔
81. 삼하17:27	로데발	로드발	공*: 로드발
82. 삼하21:8	바실래	바르실래	개개/표*: 바르실래, 공*: 바르질래
83. 삼하21:12	벳산	벤산	
84. 삼하23:9	도대	도도	공*/표*: 도도
85. 삼하23:39	우리아	우리아	공*/표개: 우리아
86. 왕상1:9	에느로겔	엔로겔	표개: 엔 로겔, 공*: 엔로 샘터
87-88. 왕상4:2,5	아사리아	아사라	표개: 아사라, 공*: 아자리아
89. 왕상4:8	벤홀	벤후르	공*: 후르의 아들
90. 왕상4:12	벤 스안	벤스안	개개: 벤스안, 공*/표: 벳스안, 표개: 벳산
91. 왕상11:7	몰룩	몰렉	표개: 몰렉
92. 왕상11:23	엘리아다	엘라다	공*: 엘리아달
93. 왕상12:25	부느엘	브누엘	공*/표개: 브누엘
94. 왕상15:5	우리아	우리아	공*/표개: 우리아
95. 왕하18:2	스가리아	스가라	공*/표개: 즈가리아
96-99. 왕하18:18,26,37;19:2			
	엘리아김	엘리아김	공*: 엘리아김
100. 왕하22:3	아살리아	아살라	표개: 아살라
101. 왕하23:10	몰룩	몰렉	공*/표개: 몰렉

57) 공동번역과 공동번역개정판에서는 히브리 본문 사무엘하 11장 8절에 두 번 나오는 ‘우리아’를 한 번밖에 번역하지 않는다.

102. 왕하23:33	립나	리블라	공*/표개: 리블라
103. 왕하24:17	맛다니아	맛다냐	공*: 마따니아
104-106. 왕하25:6,20,21			
	립나	리블라	공*/표개: 리블라
107. 왕하25:23	야아사니아	야아사냐	표개: 야아사냐, 공*: 야자니아
108. 대상1:5	마대	매대	
109. 대상1:31	여둘	여두르	표개: 여두르, 공*: 여틀
110-111. 대상2:19,20	홀	후르	공*: 후르
112. 대상2:24	에브라다	에브랏	
113. 대상2:45	벳술	벨술	
114. 대상2:50	에브라다	에브랏	
115. 대상2:50	홀	후르	공*: 후르58)
116. 대상3:7	야비아	야비아	개개/공*/표개: 야비아
117-118. 대상3:23,24	엘료에내	엘료에내	표개: 엘료에내, 공*: 엘요애내
119-120. 대상4:1,4	홀	후르	공*: 후르
121. 대상4:4	에브라다	에브랏	
122. 대상4:34	아마시아	아마샤	표개: 아마자, 공*: 아마지야
123. 대상4:41	모우님	므우님	공*/표개: 므우님
124. 대상5:3	갈미	가르미	공*: 가르미
125-126. 대상6:19[4],29[14]	말리	마홀리	공*/표개: 마홀리
127-128. 대상6:45[30],45[30]	아마시아	아마샤	표개: 아마자, 공*: 아마지야
129. 대상6:47[32]	말리	마홀리	공*: 마홀리
130. 대상7:29	벤 스안	벤스안	개개: 벤스안, 공*/표: 벳스안, 표개: 벳산
131. 대상8:14	아히요	아효	공*: 아효
132. 대상8:30	술	수르	공*/표개: 수르
133. 대상8:31	아히오	아효	공*: 아효, 표개: 아히요
134. 대상9:36	술	수르	공*/표개: 수르
135. 대상9:37	아히오	아효	공*: 아효
136-139. 대상11:4,4,5,6	여부스	여부스	개개/공*59)/표*: 여부스
140. 대상11:37	헤스로	헤스래	
141. 대상11:41	우리아	우리아	공*/표개: 우리아
142. 대상13:7	아히오	아효	공*: 아효, 표개: 아히요
143-144. 대상15:18,21	맛디디아	맛디다	공*: 마따디아
145. 대상15:24	아미새	아마새	공*/표개: 아마새

58) 히브리 본문 역대하 2장 50절의 רִבְלָא 가 공동번역과 공동번역개정판에서는 51절에 번역되어 있다.

59) 공동번역과 공동번역개정판 역대상 11장 4절에서는 히브리 본문에 두 번 나오는 ‘여부스’를 한 번만 번역했다.

146. 대상16:5	맛디디아	맛디다	공*: 마따디아
147. 대상24:16	여헤스겔	에스겔	공*: 에헤즈겔
148-149. 대상25:3,21	맛디디아	맛디다	공*: 마따디아
150. 대상26:2	여디아엘	여디아엘	공*/표개: 여디아엘
151. 대하1:5	홀	후르	공*: 후르
152. 대하17:16	아마시아	아마샤	표개: 아마샤
153. 대하17:17	엘리아다	엘라다	
154. 대하28:12	요하난	여호하난	공*: 여호하난
155. 대하28:12	무실레못	므실레못	공*/표개: 므실레못
156. 스2:11	브배	베배	공*: 베배
157. 스8:18	말리	마홀리	공*/표개: 마홀리
158. 스8:33	우리아	우리아	공*/표개: 우리아
159. 스10:43	맛디디아	맛디다	공*: 마따디아
160. 느3:4	우리아	우리아	공*/표개: 우리아
161. 느7:16	브배	베배	공*: 베배
162. 느10:24[25]	할르헤스	할로헤스	공*: 할로헷
163. 시132:6	에브라다	에브랏	
164. 시133:3	헬몬	헤르몬	공*/표개: 헤르몬
165-169. 사7:1,4,5,9; 8:6	르말리아	르말라	
170. 사13:20	아라비아	아라바	공*/표*: 아랍
171. 렘6:20	시바	스바	표개: 스바, 공*: 세바
172-173. 렘27:20; 28:4	여고니아	여고냐	표개: 여고냐
174. 렘29:2	여고니아	여고냐	표개: 여고냐, 공*: 여호야긴
175-176. 렘39:5,6	립나	리블라	공*/표개: 리블라
177-178. 렘52:9,10	립나	리블라	개개/공*/표개: 리블라
179-180. 렘52:26,27	립나	리블라	공*/표개: 리블라
181. 미5:2[1]	에브라다	에브랏	
182. 습1:1	요시아	요시아	개개/공*/표개: 요시아
183. 습6:10	요시아	요시아	공*/표개: 요시아

<Abstract>

A Proposal for Coherent Transliteration of Hebrew Proper Nouns
in the Revised Korean Version

Dong-Hyun Park

In this article I have tried to offer a table of coherent transliteration in 64 cases covering 183 verses, and in which a Hebrew proper noun is transliterated in the Revised Korean Version in two or more different ways. Each case has been reviewed and evaluated on the basis of my own observations on the transliteration system in the Revised Korean Version (cf. JBTS 8 [Feb., 2000], pp.16-157) and on the related materials of the Korean Bible Society.